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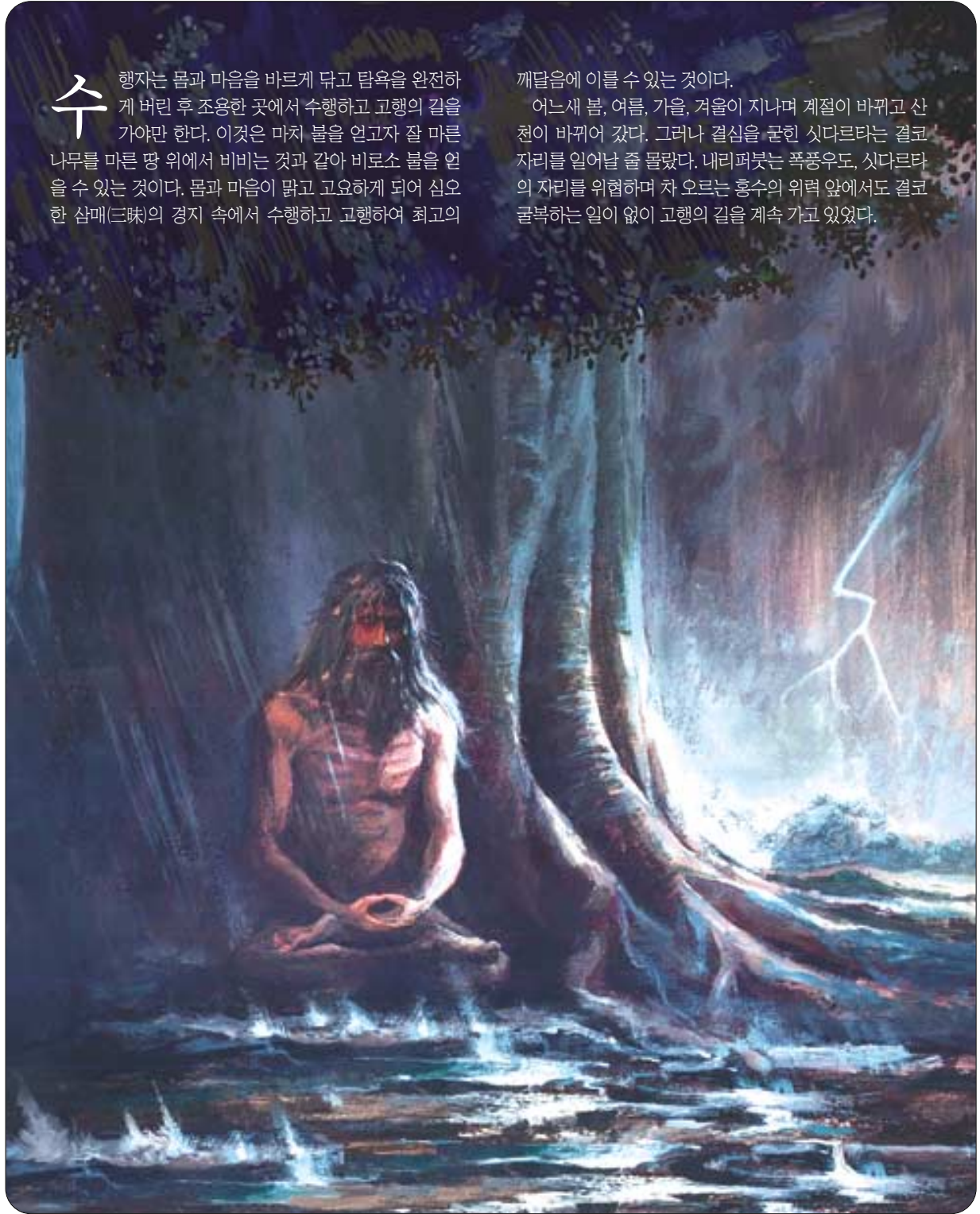
제14화 무사독오(無師獨悟)



식 다르타의 고행(苦行)은 호흡법으로부터 단식법(斷食法)으로 이어져 갔다. 차츰 식사의 분량을 줄여가더니 하루 보리 한 숟갈이 되었을 때 이미 예전 싯다르타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몸은 여윌대로 여윌어 문자 그대로 배와 등뼈가 찢어져 갈라붙었다. 거기에서 다시 쌀 한 알에 삼(糲)씨 한 알로 줄이니 바짝 마른 데다가 피부 빛깔도 다 바래어 멍빛이나 죽은 잿빛 같아서 마치 죽은 사람의 형상 그대로였다. 이 고행 기간엔 여름의 살인적인 더위도 겨울의 추위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모기나 다른 독충들이 몰어도 내버려두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고행이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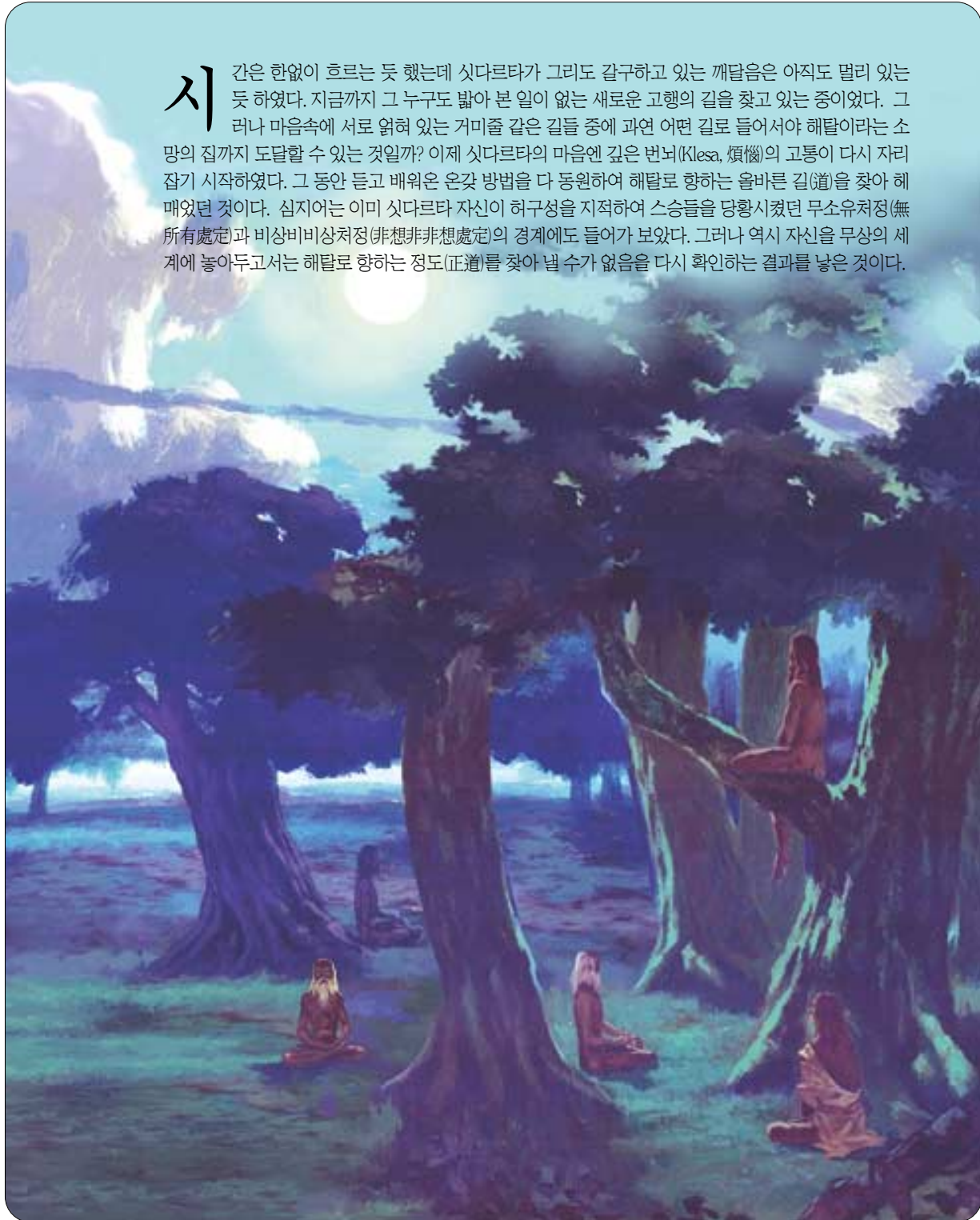
이다.

“세상의 사문(Sramana)이나 브라만(Brahman)들 가운데는 몸과 마음이 방일(放逸)에 빠져 탐욕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까마(Kama, 慾望)를 떨쳐 버리지 못한 채 고행을 하고 있는 이가 있다. 이것은 마치 불을 얻고자 하면서 젖은 나무를 물 속에서 열심히 비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어떤 사문이나 브라만 중에는 비록 몸으로는 탐욕을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착을 갖고 있는 이가 있으니 이것도 역시 불을 얻고자 하면서 젖은 나무를 마주 비비는 것과 같아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 행자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고 탐욕을 완전히 깨 버린 후 조용한 곳에서 수행하고 고행의 길을 가야만 한다. 이것은 마치 불을 얻고자 잘 마른 나무를 마른 땅 위에서 비비는 것과 같아 비로소 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맑고 고요하게 되어 심오한 삼매(三昧)의 경지 속에서 수행하고 고행하여 최고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어느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며 계절이 바뀌고 산천이 바뀌어 갔다. 그러나 결심을 굳힌 싯다르타는 결코 자리를 일어날 줄 몰랐다. 내리퍼붓는 폭풍우도, 싯다르타의 자리를 위협하며 차오르는 홍수의 위력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는 일이 없이 고행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다.



시 간은 한없이 흐르는 듯 했는데 싯다르타가 그리도 갈구하고 있는 깨달음은 아직도 멀리 있는 듯 하였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밟아 본 일이 없는 새로운 고행의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서로 얽혀 있는 거미줄 같은 길들 중에 과연 어떤 길로 들어서야 해탈이라는 소망의 집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 이제 싯다르타의 마음엔 깊은 번뇌(Klesa, 煩惱)의 고통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듣고 배워온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해탈로 향하는 올바른 길(道)을 찾아 헤매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이미 싯다르타 자신이 허구성을 지적하여 스승들을 당황시켰던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과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의 경계에도 들어가 보았다. 그러나 역시 자신을 무상의 세계에 놓아두고서는 해탈로 향하는 정도(正道)를 찾아 낼 수가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어 쩌면 해탈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잡을 수 없는 대 우주의 자연법칙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싯다르타의 눈물겨운 투쟁은 한없이 계속되어갔고 이미 한계를 넘어버린 그 체력은 더 이상 그의 생명을 지원할 수 없게되어 버렸다. 결국 그토록 갈망하던 해탈을 이루지도 못하고 아까운 한 생명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생명의 주인은 이미 모든 것을 맞이하길 각오로 그 최후의 순간까지 아직도 해탈로의 고행 길을 재촉하고 있지 않은가...

싯다르타가 생사를 가르스 최후의 기로에 섰을 때 그의 고행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줄기차게 지켜본 다섯 사람의 수행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슯타카 라마뫏타 선인의 제자들이었다. 이 다섯 명의 수행자들은 싯다르타가 처음 그들의 스승을 찾아왔을 때부터 이 사카족의 왕자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믿으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싯다르타가 입문(入門)한지 불과 한 달만에 그곳을 떠나자 크게 경악한 것이다.

“우리들은 벌써 오랜 세월을 스승의 밑에서 수행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스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저 사카족의 왕자는 짧은 기간동안에 스승과 같은 경지에 도달했고 이에 만족하기는커녕 더 높은 경지를 찾아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 분이야말로 반드시 최고의 깨달음을 실현할 것이다.” 슯타카 라마뫏타의 제자들은 서로 의논 끝에 이 사카족의 왕자를 뒤따라와 멀리서 그의 거동을 살피며 그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려 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이곳에 오는 즉시 참선에 빠져들었고 그의 수행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거룩하여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계속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이들 오인(五人)의 수행자들은 마하나마 쿨리카(Mahanama Kulika), 바드리카(Bhadrika), 다사발라 카사파(Dasabala Kasapa), 아쉬바짓(Asvajit), 아즈나타 카운딘야(Ajnata Kaundinya) 등 다섯 사람이었다.

